

# 벽안의 신부가 흘린 땀

아일랜드에서 홀로 머나먼 제주까지 찾아온 맥그린치 신부는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제주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 사람을 위해 성직자로서, 지역개발자로서, 사회복지가로서, 필방미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금악로**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110-1 ~ 한림읍 금악리 249-41(약 2.5km)

**금악목장길**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00 ~ 한림읍 금악리 308-2(약 0.9km)

**금악북로**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203-4 ~ 한림읍 금악리 111-1(약 3.8km)

**새미소길**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371 ~ 한림읍 금악리 124-2(약 0.5km)

**누운오름로** |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257-1 ~ 한림읍 금악리 산10-17(약 5.5km)

**가린내길**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050 ~ 한림읍 금악리 305(약 1.6km)

**갯거리오름길** |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429-1 ~ 한림읍 금악리 930-2(약 2.3km)

**광산로** |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763 ~ 한림읍 금악리 산31-8(약 9.5km)

**월각로** |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00 ~ 한림읍 금악리 산31(약 9.7km)

## 금악로 / 금악목장길 | 금오름과 금악마을



병두못

금악리 마을의 이름을 딴 **금악로**는 마을 중심을 지나는 도로이다. 제주의 서쪽 중산간에 자리잡은 금악리(今岳里)는 북쪽의 한림으로 향하는 중산간 서로, 서쪽의 고산으로 향하는 용금로, 남쪽의 안덕으로 향하는 한창로가 한 곳에서 만나는 교통의 요지이다. **금악로**는 이 교차로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누운오름로까지 이어진다.

**금악로**가 시작하는 인근에는 병두못이 있다. 이 연못은 400여 년 전에는 산짐승들이 목을 축이던 빨밭이었는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던 곳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1960년대에 마을 재건 사업으로 현재와 같은 모양의 연못으로 조성되었다. 이 연못에는 특이하게 물 위에 떠 있는 노인회관을 볼 수 있다.

제주의 중산간 지역은 여러 오름 사이로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어 예로부터 마소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금악리 지역에도 다수의 목장들이 자리잡고 있어 금악목장과 연결되는 길에 **금악목장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다. 과거 제주에는 말이나 소를 보살피는 목동인 테우리들이 마을의 가축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방목하며 키웠지만, 오늘날은 대부분 목장에서 축사를 이용해 말을 키우는 현대식 방법으로 바뀌었다.

## 금악북로(맥그린치로) | 이시돌목장과 맥그린치 신부



이시돌목장 막사로 사용하던 테쉬폰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목장은 이시돌목장이다. **금악북로**의 끝부분에 이르면 만날 수 있는 이시돌목장은 60년의 역사를 가진 목장으로 제주 축산업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다. 이시돌목장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맥그린치 신부이다. 천주교 사제인 맥그린치 신부는 60년이 넘게 한림에 살면서 이 지역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사회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

을 한 분이다. 아일랜드 태생인 맥그린치 신부는 1954년 26세의 젊은 나이에 한림성당에 부임했다. 그 때만해도 제주 사람들의 생활은 참으로 궁핍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 종교생활은 꿈꾸기도 어려운 시절이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4H 클럽을 결성하고, 중산간의 황무지를 개간해 이시돌목장을 조성했다. 그 후 축산업과 낙농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한림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일자리와 축산기술을 제공했고, 그로인해 한림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다고 한다. 특히 이시돌목장의 한림수직사에서 만들었던 옷은 과거에 고급 혼수품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오늘날 이시돌은 성이시돌 요양원과 어린이집, 젊음의 집 등의 사회복지 사업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오갈 곳이 없는 말기 암 환자가 임종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성이시돌 요양원은 몸과 마음이 지친 암환자들이 삶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제주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그의 노력은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사이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제주 명예도민으로 선정되면서 ‘임피제’라는 한국 이름도 갖게 되어 진정한 제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제주를 위해 공헌한 맥그린치 신부를 기념하기 위해 **금약북로**에는 맥그린치로라는 별칭이 명예도로로 붙어있다.

## 새미소길 | 새미은총의 동산

이시돌목장과 연결되는 **새미소길**에는 맥그린치 신부가 조성한 새미은총의 동산이 유명하다. 새미소오름을 중심으로 조성된 은총의 동산은 천주교 신자라면 한 번쯤은 들러볼만한 곳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실제 크기의 동상으로 제작해 놓아 예수의 삶을 실감나게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새미소오름에는 정상에 있는 화구호를 중심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길과 야외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성모동굴, 삼위일체 대성당 등이 이시돌 주변의 자연환경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천주교인들의 성지순례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꼭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영혼의 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새미소길** 입구에 마련된 성이시돌센터 전시관에는 맥그린치 신부와 한림 지역의 사람들이 정성으로 일구어낸 이시돌목장의 역사를 안내하고 있어 그들의 땀과 노력을 느낄 수 있다.



새미은총의 동산

## 누운오름로/가린내길/갯거리오름길 | 누운오름과 갯거리오름

금악리 주변에는 금악로처럼 오름의 명칭에서 따온 도로명을 더 볼 수 있다. 동명리에서 금악리까지 이어지는 꽤나 긴 길인 **누운오름로**는 누운오름을 지나는 길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누운오름은 소가 누워있는 형태라고 해서 누운오름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오름이지만 분화구의 규모는 꽤 크다. 주변의 오름에서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광경은 누운오름의 매력이다. 누운오름은 한림지역을 가로지르는 옹포천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바다까지 이어지는 옹포천은 많은 물이 솟아나서 도내에서 풍부한 수량을 가진 곳으로 손꼽힌다고 한다. 그래서 제주시 서부 지역의 상수원으로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 옹포천은 가린천 지점에 이르러 둘로 갈라지는데 **가린내길**은 이런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갯거리오름길**은 또 다른 오름인 갯거리오름을 지나는 길이다. 갯거리오름은 두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봉우리 사이를 지나는 길이 명월리와 금악리의 경계가 되고 있다. 두 봉우리는 원래 하나였던 오름이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둘로 나뉘지게 되었다. 남쪽 봉우리를 선소오름이라 부르기도 한다. 갯거리오름의 남쪽에는 만병퇴 공동묘지가 자리하고 있다. 이 묘지는 1950년 예비검속 때문에 대정의 석알오름에서 집단 학살되었던 사람들의 유골을 모신 곳이다. 아름답기만한 제주의 오름에는 이처럼 제주의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 많다.

## 광산로 | 상대리

누운오름로와 월각로 사이에 있는 **광산로**는 상대리와 금악리를 연결하는 길이다. 옛지명을 반영해서 **광산로**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길이 지나는 상대리(上大里)는 병자호란 때 인동 장씨가 종구실마을에 정착하면서 마을이 생겨났다고 전한다. 제주에 처음 들어온 입도시조의 묘가 상대리의 천아오름에 있다고 하고 마을에 인동 장씨가 대를 이어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예전에는 종구실마을이라고 불렀는데 마을이 점점 커지면서 대촌리가 되었다가 대림리의 위쪽 마을이라고 해서 상대리로 부르게 되었다. 상대리에는 과거에 상대과원이 있어 감귤을 재배했던 마을로 유명했다고 한다.



## 월각로 | 월각동

귀덕리에서 금악리까지 장장 10km에 걸쳐 이어지는 **월각로**는 이 지역의 마을인 월각동(月角洞)의 이름을 반영한 길이다. 월각동은 마을의 지형이 초승달과 비슷해서 붙인 이름이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어느 지관이 초승달이 다 차서 보름달이 되면 기울어지니 초승달처럼 생긴 이 마을에 오래 살게 되면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어느 한 사람이 이 마을에 살게 되었는데 마을 이름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점점 부자가 되어 남부럽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성격이 나빠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일에 대한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 비재했다. 결국 이 사람은 역적으로 몰려 집터를 파내 연못을 만들어 버렸다고 한다. 이후 다시 다른 사람이 이주해 들어와 마을을 이루려고 했는데 마을에 어느정도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을 때쯤 4·3사건이 일어나 사람들이 모두 떠나게 되고 모든 집이 불타버렸다고 전한다.

